

‘베스트, 패스트, 워스트셀러’

‘많이 팔리는 책’ 즉 베스트셀러의 개념을 처음 이론화했던 사람은 프랑스의 제몽 사상가이자 출판인의 한 사람이었던 디드로(Denis Diderot, 1713-1784)였다. 그는 《출판업에 관한 역사적 정치적 서한》이라는 책에서 “책에는 출간 즉시 성공하는 책,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은 성공하는 책, 실패하는 책 등 세가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출간 즉시 성공하는 책은 지금으로 말하면 패스트셀러(Fast seller) 내지는 베스트셀러(Best seller)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공하는 책은 지금의 스테디셀러(Steady seller)라고 정의할 수 있다. 200년 전의 현상이 지금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베스트셀러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시기는 1895년경이었다. 미국에서 발행되던 《북맨(The Book-man)》이라는 월간지에 ‘찾고 있는 책(Book in Demand)’이라는 고정란이 신설되면서부터였다. 몇년 후인 1903년 잘 팔리는 여섯권의 신간 리스트를 소개하던 이 고정란의 이름이 ‘Best Selling Books’로 바뀌면서 ‘베스트셀러’라는 말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20세기 초 베스트셀러는 곧 패스트셀러였다. 나오자마자 불티나게 팔리는 ‘신간’에만 베스트셀러라는 명명이 가능했다.

그후 미국의 출판산업이 상업적인 경향으로 치닫기 시작하면서 생긴 말이 ‘빅셀러(Big seller)’였다. 1930년경 예상외로 잘 팔리는 책을 지칭하면서 생긴 이 말은 1970년대 ‘밀리언셀러(Million seller)’라는 말을 파생시켰다. 이 말은 미국에 비해

‘베스트셀러’란 개념은 20년 전 프랑스의 한 출판인이 이론화하면서 시작된다. 출간 즉시 성공하는 ‘패스트셀러(Fast seller)와 시간이 지나면서 성공하는 스테디셀러의 개념 이후 1930년대 빅셀러와 70년대의 ‘밀리언셀러’라는 새로운 개념도 생겨났다. 또 베스트셀러의 내용 부실을 꼬집은 워스트셀러(Worst seller)란 말도 등장했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어 밀리언셀러가 나오기 힘든 우리나라에서 80년대 후반 큰 유행을 일으키기도 했다. 상당수 상업출판사들에게 ‘꿈의 극대치’로 자리잡았던 것이다.

출판사들이 상업적 성공에 급급하면서 베스트셀러는 ‘내용보다 기획 광고 마케팅 등 내용외적인 요인에 의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이때 미국 편집자들 사이에서는 ‘3S’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한다. 베스트셀러를 만들기 위한 3대 조건을 의미하는 이 말은 Sex, Sensation, Sentimental의 축약어였다.

이런 조건을 바탕으로 베스트셀러를 제조하는 작업을 출판업자들은 ‘블럭 버스터(Blockbuster)’라고 불렀다. ‘대형폭탄’을 제조한다는 뜻이었다. 그즈음 시류를 못마땅하게 여긴 의식있는 출판인들이 만들어 낸 말이 베스트셀러의 이런 허구를 비꼬는 워스트셀러(Worst seller)였다. ‘베스트셀

러는 곧 워스트셀러’라는 말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다 60년대 후반 여론이 확산되면서 일부 서점들이 베스트셀러 리스트와 함께 롱셀러 리스트를 공개한다. 이때 리스트의 제목으로 ‘스테디셀러(Steady seller)’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다. 그 후 롱셀러는 아주 긴 시간 동안 팔리는 책을, 스테디셀러는 건실하게 시기와 상관없이 팔리는 책을 의미하는 말로 구별되었다.

일부 출판인들은 베스트셀러의 3대 요소인 ‘3S’에 대해, 스테디셀러의 3대 요소로 ‘3L’을 만들어낸다. Legal, Legendry, Long run의 축약어로서 원칙에 충실하고, 시대를 초월한 고전적인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하며, 생명력이 길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베스트셀러 집계가 시작된 것은 1962년부터였다. 그후 우리나라 출판계에서 ‘베스트셀러’라는 문화 현상은 미국의 그것과 거의 흡사한 양태로 진행되어왔다. 지금도 “베스트셀러가 반드시 좋은 책은 아니다”라는 말이 어김없이 적용된다. 출판사들이 베스트셀러 시스템을 그대로 자사의 편집방향으로 정해놓고 ‘베스트셀러 만들기’를 시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출판계에 불고 있는 ‘소량 다품종 체제’로의 변화 분위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한다. 독자들의 정당한 평가를 받는 ‘스테디셀러 만들기’가 우리나라 출판사들의 편집원칙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뜻 있는 독자와 출판인들의 공통된 바람이다.

출판저널

통권 제176호/1995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한

편집주간—이승우
편집장—김지원
기자—박남정 허연
한동림 배은희

디자인—윤정자
사진—김지옥

업무부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천 김우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최학수
총무부장—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쿠실로 우송해 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우체국 대계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책을 잘 만드는 사람들

교정 및 교열 / 편집대행 / 전자조판 / 수학 교재 및 참고서 제작
위탁출판 / 기획출판 / 제작대행 / 광고물 제작

어떤 제작물이든지 맡겨만 주십시오.
제작물 하나하나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동아출판서비스
동아정보시스템·기획3부

주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2동 36번지 고려아카데미빌딩 1714호
전화●701-8335, 6·012-851-8336·팩시밀리●701-8336

표지에 관한 스트레스

좋은 기획이
출판인의 꿈이라면
좋은 편집은
미술인의 꿈입니다



양무리
출판 편집 광고디자인
TEL267-0396, 272-8097

정리직 여사원

대학교재 및 단행본 출판사에서 같이 근무할 확실한 정리직 사원을 구합니다. 희망자는 이력서(사진), 자기 소개서(전화연락처 명기)를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258호